

A man with dark hair, wearing a dark suit jacket over a light-colored shirt, is shown in profile from the chest up, speaking into a silver microphone. He is looking slightly upwards and to the left. The background is a vibrant, futuristic cityscape at night, featuring a prominent building with a grid-like facade illuminated in purple and blue. The sky is filled with streaks of light in various colors (blue, green, red, purple) and digital data patterns, creating a high-tech, digital atmosphere. The overall lighting is dramatic, with strong highlights on the man's face and the microphone.

최승호

“언론이 질문을
못 하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질문

좌도 우도 아닌 진실

이념과 정파가 아닌 진실

시민과 민주주의

추락의 길을 걸어온... MBC

2012년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정영하, 최승호 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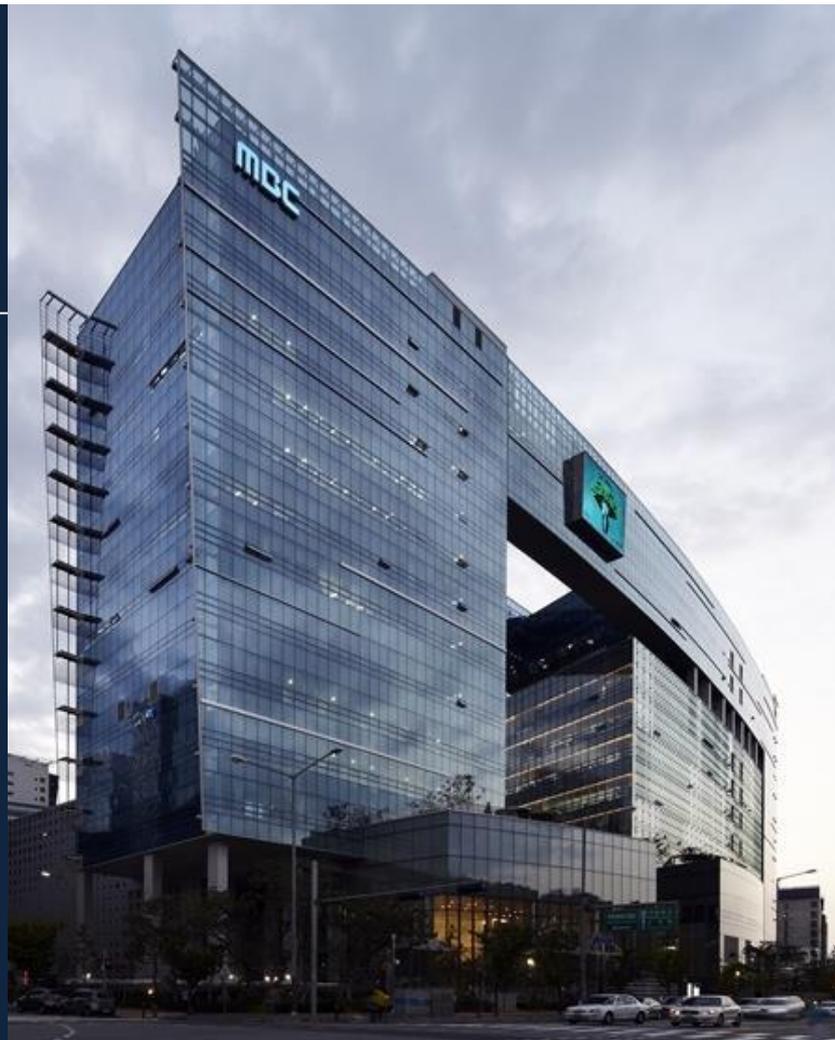
170일 파업 이후 200여명 징계 및 보복성 인사

MBC 위기, 이유는?

드라마 · 예능을 못 만들어서?

비즈니스의 위기? 신뢰의 위기!

응답하는 MBC, 소통하는 MBC



새로운 MBC를 향한
부문별 혁신안

MBC 혁신

1. 뉴스

과거 반성으로 시작

중립성 뒤에 숨지 않는, 분석과 비판

백화점식 뉴스 탈피

디지털 퍼스트, 시청자 퍼스트



MBC 창사 5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TEARS OF THE ANTARCTIC
2011년 12월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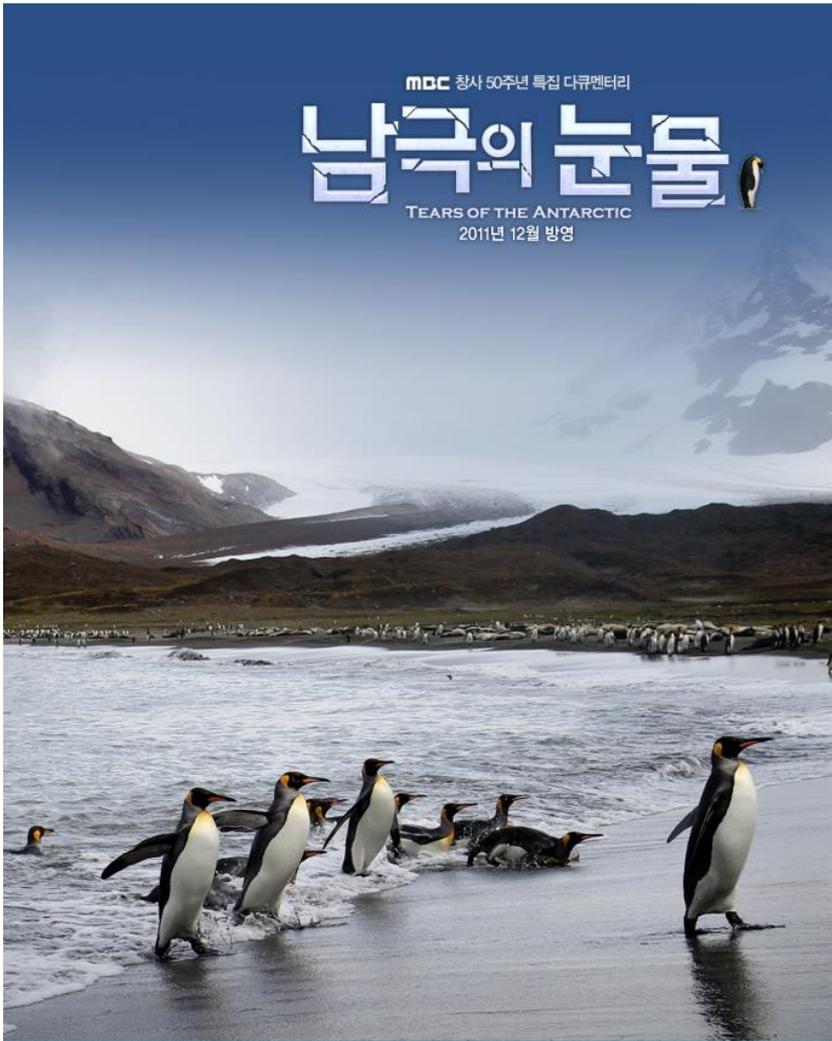
MBC 혁신

2. 시사교양

MBC의 강점, 탐사보도 부활

10년 뒤에 봐도 진실인 보도

근본에 주목하는 다큐멘터리



MBC 혁신

3.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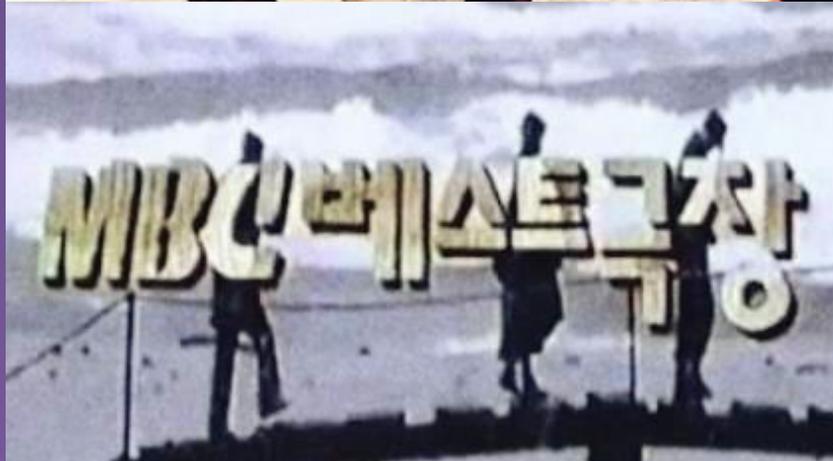
공영방송다운 드라마

시대와 인간 그리고 품격

드라마 시즌제 도입

다양한 실험 가능한 단막극 부활

드라마 왕국 · 한류 메카 재현



MBC 혁신

4. 예능

실패할 자유 - 파일럿 프로그램 활성화

예능 프로그램 시즌제 도입

창의성을 위한 재충전 보장



MBC 혁신

5. 라디오

〈시선집중〉등 시사 프로그램 재건

최고의 진행자 라인업 복원

신선한 목소리 과감히 발탁





MBC 혁신

6. 디지털

콘텐츠를 이기는 플랫폼은 없다

플랫폼 별로 차별화된 콘텐츠 역량 강화

디지털 콘텐츠 개발 · 유통 전략 수립

다양한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

MBC 혁신

7. 신입사원 공채

2018년 초 전 부문 신입사원 공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우수 인재 채용



MBC 혁신

8. 노사공동 재건위원회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부패 및 권한 남용 집중 조사

엄정한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

해직자 즉각 복직



새로운 MBC를 향한
조직 재건안

1. 조직문화

본부장 책임제 폐지

국장 책임제 복원 - 제작 자율성 회복

임명동의제 등 구성원 의사 반영

상향평가제 실시

MBC 재건

2. 공영방송의 책임

BBC 가이드라인 수준의 프로그램 준칙 마련
공영방송 종사자의 엄격한 윤리강령
시청자위원회 · 옴부즈만 활성화
자율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MBC

MBC 재건

3. 지역계열사

수직적 구조 타파, 자율 경영 강화

지역사와 TF 구성해 현안 해결

계열사 사장 선임 절차 투명화

자사 출신 사장 선임 확대

전국 어디서나 응답하는 MBC

MBC 재건

4. 창작자들과 상생

방송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표준 계약서 도입

비정규직 대표와 정기적 현안 협의

독립제작사와 수평적 동반자 관계

MBC 재건



최승호의 약속

사장 마치면 저널리스트로 돌아갑니다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